

2020년 나눔과섬김의교회 추석 예배모범

☞ **예배초대**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 **찬 송** 90장

☞ **기 도**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계절, 좋은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내왔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 경** 요한복음 7:37-39 (신약 157쪽)

☞ **설 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음력 8월 15일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의 정을 나누는 추석명절로 지켜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우리의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는데,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한 해 동안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생수를 언급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초막절 동안 매일 아침마다 유대인들이 성전 제단 주위를 돌며 찬양할 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샘물을 떠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흠족한 비를 주셔서 다음 해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달라는 소원을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는 에스겔 47장의 성전의 환상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부터 생수가 나와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만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어서 이 일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와 같은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부흥과 성전의 회복과 풍성한 삶의 약속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하여서 그 영광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수고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쾌락으로, 부귀영화로, 지식과 철학으로, 사람으로 그 빈 자리를 채우려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끝없는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자신의 영혼은 결코 쉼을 누릴 수 없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초막절 아침마다 물을 제단에 붓는 것으로 만족을 구하려 했지만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구원도, 안식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절기가 되면 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심령의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만족을 느끼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또다시 쉽게 갈증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좋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것, 봉사활동을 하는 것 등등의 실천은 우리를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오해도 거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제단에 물을 붓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스스로 생수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 목적지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쉽게 갈증을 느껴 또 다른 만족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추석이면 많은 선물이 오고갑니다. 선물은 포장과 내용, 전달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선물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주시기 위해 추석과 같은 삶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과 풍요로움이라는 선물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직장이 안정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전해주시기 위한 선물상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실 수만 있다면 때로는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배, 기도응답, 삶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평안,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전해주시는 주된 은혜의 통로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팽개치고 선물에만 집중합니다. 선물을 전해주는 배달부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예쁜 선물 상자를 모으느라 정작 중요한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즉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선물상자에 담아 주시던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즉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흠족한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온 가족이 되십시오.

☞ **기 도** 하나님, 추석이라는 기쁘고 풍요로운 명절을 통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간섭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찬 송** 309장

☞ **주기도** 다같이